

## 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에 관한 대한민국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공동 보도자료

2026년 5월 19일 대한민국 안동시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간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i) 에너지 안보 및 ii) 공급망 회복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 간 논의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I. 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 i) 원유 및 석유제품

양국은 원유 수입국이라는 공통점과 정유·석유화학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와 경제산업성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민관 대화를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스왑 및 상호 공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관련 제품의 상호 공급 및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 자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나) 원유 조달 및 운송 분야 협력 (자원 생산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

#### ii) 액화천연가스 (LNG)

대한민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3위 및 2위의 LNG 수입국으로서, 산업통상부와 경제산업성은 LNG 수급 협력을 지속 추진·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2026년 3월 14일 도쿄에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금번 산업통상부와 경제산업성 간 LNG 협력 논의는 한일 양국 간 에너지 안보 및 LNG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II. 공급망 회복력

대한민국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6년 3월 14일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경제산업성 아카자와 료세이 대신이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기반으로, 양국 간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III. 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대한민국과 일본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Partnership on Wide Energy and Resources Resilience in Asia, “POWERR Asia”)」과 같은 구상을 통해, 비축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상기 분야에서의 협력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부와 경제산업성은 양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Industry and Trade Policy Dialogue)」 출범을 포함하여 정부 간 논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문경필 (044-203-5691)
			사무관	윤소희 (044-203-5692)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24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246)
			사무관	성치운 (044-203-5254)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장선화 (044-203-5218)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한주현 (044-203-5230)
		담당자	사무관	윤철희 (044-203-5232)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	책임자	과 장	박다정 (044-203-4870)
		담당자	사무관	원미경 (044-203-4871)